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FTA, 삼계탕, 무역위원회, 함량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FTA, 삼계탕, 무역위원회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1. 7. 1.
한-EU FTA 잠정발효

2011.10.12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2016. 5.
한국식약품안전처,
상반기 축산물
수출설명회 개최

2016. 12. 16.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핵심이슈
도출

“한-EU 어묵 ·삼계탕 수입규제 완화 검토”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한-EU 무역위원회, 어묵·삼계탕 수입규제 완화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2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어묵과 삼계탕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어묵과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EU는 해당 분과별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EU는 어묵의 주원료인 명태 함량에 대해 EU산에 50%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측의 기준비율 완화 요청에 대해 EU측은 2017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측은 삼계탕과 같은 열처리 가공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의 진행을 촉구했으며, EU는 이를 즉각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한-EU FTA잠정발효 이후 한국-대세계교역이 8%증가한 반면, 한-EU 교역은 14% 증가하는 등 한국과 EU는 활발한 교역을 해 오고 있다. 또한 4월 한국 가금류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이 EU대표부에 등록됨에 따라 수출라벨링 및 삼계탕 수출작업장의 EU등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등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5월 ‘2016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설명회’를 통해 EU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한국은 2014년 미국, 2016년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삼계탕은 AI등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양국 간 합의한 위생조건에 부합한다면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4월 가금류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의 EU대표부 등록 이후 EU로의 수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EU국가로 삼계탕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위생기준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EU위원회 식품안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food/safety_en)